

드럼과 마주하는 시간

글. 박주미 YTN 뉴스기술1팀 사원



안녕하세요. YTN 제작기술국 뉴스기술1팀에서 음향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미입니다. 저는 뉴스 현장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방송 뉴스 속에서 말이 또렷하게 전달되는지, 현장의 소리가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뉴스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고민합니다.

뉴스는 정해진 흐름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속보가 추가되고, 연결 화면이 바뀌며, 예고 없이 뉴스의 순서가 조정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향감독은 변화하는 뉴스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리 역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판단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남들과는 다른 리듬의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퇴근하고, 어느 날은 평일 낮에 예상치 못한 개인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주어지는 이 여유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머무르기엔 아까운 시간이고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합주부에서 작은북을 맡아 연주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박자에 맞춰 소리를 내고, 다른 악기들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은 당시에는 막연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음악과 호흡하는 법을 처음 배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악기를 잡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 떠오른 악기가 바로 드럼이었습니다.

드럼은 손과 발로 리듬을 만들어 가는 악기입니다. 정확한 박자를 요구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고, 반복을 통해 감각을 차분히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악기를 시작하기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드럼을 취미로 시작하면서 가볍게 혼자 연습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원에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리듬을 제대로 익히고 싶었고, 기본부터 차분히 쌓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드럼 레슨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레슨을 받던 날을 떠올리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드럼스틱을 쥐는 방법, 의자에 앉는 자세, 페달을 밟는 감각까지 소리를 내기 전의 준비 과정이 연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외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과정들이 갖춰져야 안정적인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점차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럼은 여러 개의 도구가 모여 하나의 악기를 이룹니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스네어 드럼은 리듬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베이스 드럼은 발로 박자를 지탱합니다. 탐은 소리의 높낮이를 바꿔주며 연주에 변화를 더해 줍니다. 하이햇은 박자를 쪼개며 리듬을 또렷하게 만들고, 심벌은 흐름의 시작과 끝을 강조해 줍니다. 손과 발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은 리듬을 잘 따라가는데 발이 한 박자 늦게 들어오거나, 발에 집중하는 순간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도 서로 타이밍을 맞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연습을 멈추고 다시 박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치거나 한쪽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손과 발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도 같은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럼 연습은 몸을 하나로



어느덧 배운지 1년이 넘는 드럼 레슨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움직임들이 조금씩 타협하며 맞춰지는 과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1년 동안 레슨을 받으며 느낀 것은, 드럼은 배울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악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을 익혔다고 생각해도 조금만 다른 리듬이나 패턴을 만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드럼은 점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장르가 다른 여러 곡을 접하며 같은 드럼이라도 음악에 따라 소리와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곡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연습의 결과가 분명하게 남는다는 점 역시 드럼을 계속 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드럼 학원을 꾸준히 다닌 지난 날들

혼자 연습하는 드럼에 익숙해질 즈음, 소리를 다른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치는 드럼이 제 리듬을 다듬는 시간이었다면, 함께 연주하는 드럼은 서로의 박자를 듣고 맞추는 또 다른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동호회인 'Y music'에서 밴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어 연습 일정을 맞추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서로 겹치거나 방송 스케줄이 바빠다 보니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에 모이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높은 집중력으로 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곡의 흐름을 정리하고, 각자의 파트를 빠르게 맞추며 불필요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이 연습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밴드는 한로로의 <비틀비틀짜짜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기에 완성까지의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그만큼 한 번 한 번의 연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며 소리를 듣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데이식스 콘서트'를 관람하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곡을 즐기는 동시에, 각 악기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리듬과 멜로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럼 소리는 가장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공연장 전체의 울림 속에서도 킥과 스네어, 심벌의 움직임이 리듬의 뼈대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



데이식스 콘서트장에서





성된 연주는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습실에서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을 때 리듬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도 조금 더 여유와 확신을 더 해주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난 후 드럼 레슨을 받을 때 데이식스 곡을 연주하고 싶다고 드럼 강사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데이식스 곡 중 난도가 꽤나 높은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벅차게 느껴졌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마침내 그 곡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저는 밴드 활동을 이어가며 데이식스의 음악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그때의 집중과 성취감을 떠올리며, 음악과 리듬 속에서 다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드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저에게 하루를 채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 덕분에 직장에서 소리를 다루는 일도, 리듬을 맞추는 연습도 조금 더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며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악기를 배우고 싶는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

없이 드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드럼은 손과 발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미가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손과 발이 서로 싸우는 것 같고, 박자가 엉키기도 하지만,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의외로 짜릿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맞아들어가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드럼 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박자가 덜 흔들리고, 어제는 안 되던 부분이 오늘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연습이 숙제처럼 느껴지기보다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드럼을 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는 악기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리듬에 집중해 손과 발을 움직이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습을 마칠 때에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뿌듯함은 생각보다 큼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쳐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기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드럼을 치는 시간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쉼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리듬 속에서 정리되고 손과 발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잡념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드럼을 치는 시간은 연습이면서도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주는 악기 하나쯤, 지금 시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